



대형스님

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중구 경치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FAX: (02)737-0697/8  
●PC통신: 인터넷부다피아 http://www.buddhapia.com/mem/haemaum

# 함이 없이 할줄 알아야 보살입니다

### 보살은 실존인물인지요

**문** (1)불교에는 관세음보살, 미륵보살, 지장보살, 법장보살 등 많은 보살이 있는데 이들은 실존인물들입니까? 아니면 그저 경전에 나오는 전설적, 또는 이상적 인물입니까?  
그리고 석가모니 부처님을 비롯해서 보살들이 신앙의 대상이 되는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불교는 신을 숭배하지 않는 철학적인 종교라고 들었는데 그 실상은 많이 다른 것 같군요.  
그리고 부처님도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으려고 말씀하신걸로 알고 있는데 깨달음을 얻기 위해 정진하면 그것으로 되었지 굳이 소원을 들어 달라고 기원을 할

이러듯이 그 보살이라는 평등한 이름 속에서 약사도 되고 관세음도 되고 하는 그 이름을 말하는 겁니다.

모든 게 이름이 주어지는 거고 보살의 이름이라 할지라도 그건 이름으로써 주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진짜 실천은 함이 없이 하는 거죠. 함이 없이 할 줄 아니까 보살이라는 이름이 주어지죠.

우리가 법당에 들어가보면 부처님 문수보현 이렇게 세 분을 모셔 놨는데 가만히 있으면 저 가운데 부처고, 생각을 했다 하면 문수 법신이고, 몸을 움직여줬다 하면 보현보살이고, 이렇게 모두 한성 모두 이루어지는 것을 모르고 각각 찾고만 있으니 언제까지 그렇게 찾아야만 되느냐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부처고 생각을 했다하면 문수 법신이고 몸을 움직여줬다 하면 보현보살이니 모두 그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나와 나가 통하지 못했기 때문에 몰라서 각각 이름으로 찾아서 해매고 그러니 그렇게 알고 들어가세요.

(2)극락·지옥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자리에서 독사같이 악하게 살면은 독사의 무명을 쓰고 나오듯이 자기가 지옥으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극락에서 사느냐 아니면 지옥에서 사느냐 하는 문제가 주어지는 겁니다.

'나' 라는 게 공해 버려서 무조건 어떤 거 할 때 '나' 라고 할 수 있을까 하고 모든 걸 쫓아다니는 거고, 살면서 그랬기 때문에 죽어서도 나라는 것을 놓지 못해서 항상 그 업식에 빠져서 못 나오고, 자기 의식으로 몰려 빠져 죽을까봐 못 견디고, 불에 타 죽을까봐 못 가서 자기의 길을 못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어서 극락왕생을 바라기 보다는 우리가 살아있을 때 이 마음도리를 공부해서 깨달아야 그게 열반입니다. 살아서 깨달아야 열반이지, 죽어서 혼백이 가는 것이 열반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열반이란 말을 할 것도 없죠. 살아서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죽어서 어떻게 깨달습니까? 죽었다고 해도 살던 업식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 그래서 우리가 살아 생전에 이 도리를 알아야 발 자체를 거머쥐고 다니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 놓고 하나 뛰어 놓고, 또 하나 놓고 하나 뛰어 놓으려고 하는 거 같습니까? 우리가 걸음 걸음이 일체반반도 그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놓고 간다는 얘기고요. 자연스럽게 아버지 노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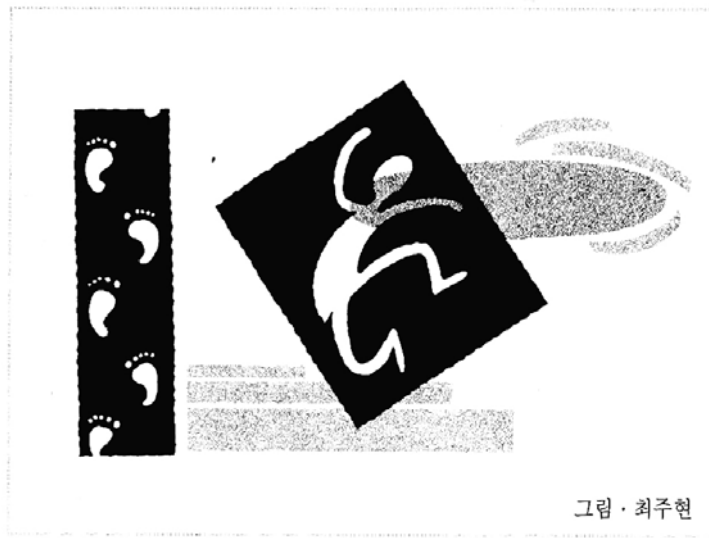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 살아서 마음도리 깨달아야 그게 곧 열반 진실하고 간절하게 놓아야 녹일 수 있어

을 하고 자연스럽게 남편 노릇을 하고, 자연스럽게 형님 노릇을 하고 아들 노릇을 하면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돌아 가는 데 어떤 노릇을 할 때에 내가 했다고 할 수 없기에 공한 도리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로 한다고 해서 실감이 안날 겁니다. 자기가 진짜로 지옥에 들어서 봐야 '정말이지 이렇게 하면 아니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3)그리고 천도와 윤회에 대해서 물었는데 이론으로 불법을 말한다면 한계가 있고 결함이 있고 또는, 이간 못된 법 지간 좋은 법하고 나눔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대승의 도리는 즉 공법의 도리는 그게 아니라 필요할 때 들고 한마리를 죽인다고 해서 살생이라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고기 모습을 진화시켜서 달리 형성시켰으니까 건진 것이고 또, 그 물고기는 그대로 약으로 쓰니까 살생을 죽인 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있어요. 마음의 도리를, 즉 말하자면 보이는 자기가 안보이는 자기를 믿지 않고 모른다면은

살생이 되고, 그 도리를 안다면 살생이 되는 게 아니라 공덕이 되는 거죠. 그러나 이름에 속지 마시고 자신의 뿌리를 믿고 모든 것을 맡기는 실천이 중요하합니다.

### 놓아도 녹지않고 올라옵니다

**문** 아무리 돌려놓아도 녹여지지 않는 것은 평생 놓기만 하다가 가야합니까? 나름대로는 놓았다고 열심히 했는데도, 끝없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답** 녹여지지 않는 것들로 인해서 마음이 무척 아름답습니다. 말 그대로 나름대로 놓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더욱 진실하고 간절하게 놓는다면 그 어떤 것도 다 녹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놓는다는 생각, 올라온다는 생각, 그리고 마음이 아프고 괴롭다는 생각도 놓고 관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 소식해야 수행 잘 되는지요

**문** 마음 공부를 하면 할수록 기쁨이 가득합니다.

즐거움으로 가득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적당한 음식에 대해서입니다.

저는 음식을 보면 탐하는 마음이 생겨서 제 양보다 많이 먹게 됩니다. 열심히 음식에 대해서 마음으로 주인공 자리에 놓고 갑니다.

그런데 소식을 해야지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고 바른 수행법이라고 합니다. 왜 소식을 해야하는지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소식을 잘하기 위한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답** 옛 선지식들께서도 말씀하시길 배가 고프야 공부를 잘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배가 부르면 정신이 맑지 못해서 늘 흥미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선 몸을 잘 다스리는 것도 공부입니다. 음식을 탐한다기 보다 습하겠죠. 얼마든지 고칠 수 있습니다. 좀 더 간

무엇이 있는 것인지, 또 무엇이 없는 것인지, 시간과 공간, 그리고 거울이라는 큰 전제 하에서 나름대로 주인공을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마음 선원에 다니시는 분께 스님 말씀을 들으시는 오래이나, 저 자신인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스님을 찾아 뵈올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까. 제가 진정한 선한 '진아'를 찾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답** 심적으로 방향을 한다고 하는데 모든 것은 한 순간입니다. 어떠한 상황이건, 어떠한 생각이 일어나면, 일체를 주인공 자리에 놓고 관하세요. 사랑으로 무엇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그 자리에 일임하고 그 자리에서 답을 얻으세요. 그 도리를 알면 사는 것이 아무리 고스름다 해도 그것을 오히려 공부할 수 있는 재료로 삼게 됩니다.

마음을 지을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지만 얼마나 광대무변한지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끝난 데 없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주인공자리를 찾으려고 공부하고 있다하니 이제부터라도 하나로 모으는 수행, 즉 주인공자리에 모든 것을 일임해서 놓고 지켜보며 관하는 공부를 하기를 바랍니다. 꼭 벗어날 겁니다.

### 인연의 이치 알고 싶어요

**문** 많은 망설임 끝에 큰스님께 말씀을 올립니다.

저에게는 아주 소중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간에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법사님께서 그 사람과는 인연이 아니니 정리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인연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지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말씀이 있어서인지 몰라도 요새 그 사람과 사이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마음을 놓으려고 애썼지만, 다시 무기력해지기만 하는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스님의 큰 가르침을 받고 싶습니다.

**답** 세상 만물 만생은 인연에 의해서 만나고 인연에 의해서 헤어지는 겁니다. 우연하는 없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도 어떤 인연이든지 새롭게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나 생각으로 끄달리지 말고 주인공이

16면으로 계속

절하게 관하면 자기 양만큼 조절이 됩니다. 열심히 해보세요.

### 주인공 자리 찾고 싶습니다

**문** 아직은 어떤 질문을 여쭙어야 할는지조차 모를 혼돈 상태입니다.

저는 원불교집안에서 태어나 무종교인 신 부모님 밑에 자라난, 34세 주부입니다. 특별한 한 종교를 믿어 본 적도 없고, 언젠가부터 '자신'을 믿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며, 어느 종교 단체에도 참가해 본 적이 거의 없는 사람입니다.

3~4개월전부터 우연한 깨달음으로 많은 심적 방향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몇차례씩 '선과 악' '이기와 이타'의 사이를 방황하며 헤매이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정말 아무 것도 아닌 한 주부요, 두 아이의 엄마요, 한 남자의 아내로만 살았던, 지금껏 평범한 존재에게 이러한 혼돈이 왔는지 이해가 안될 정도입니다.

무엇이 사는 것인지, 또 죽는 것인지,

법공양페이지는 동침을 원하는 중단·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여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으로 중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

하며 개인 불지의 경우는 특정 중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 보답을 바라지 않는 참사랑이 바로 자비

진실이 담기지 않은 겉치레 말은 그럴 듯하고 멋지고 허드러도 붉은 씨앗과 같아서 아무리 기름진 땅에 심어도 싹을 틔우지 못한다. 모를지기 수행자라면 말이 말에 떨어지게 해서는 안된다. 일단 입을 열어 법을 이야기한다면 그 말을 들을 이에게는 물론 자기 자신에게도 공덕이 있어야 한다. 그런 말을 하는 참 수행자가 되라.

말 한번 잘못하고 행 한 번 잘못하면 그것의 누(累)가 내게만 미치는 게 아니라 역대 조사들한테도 미치고 석가모니 부처님에게도 미친다. 그것은 참으로 광대 무변한 불성, 그 능력을 지닌 인간의 존엄성을 더럽히는 일이기 때문이다.

어머니가 도둑질한 자기 자식을 말없는 슬픔으로 감싸듯이 다른 사람의 행업을 마음으로 감싸면서 자비심을 내도록 하라. 정법이니 사법이니 가리느라 친구의 로 업을 짓지 말고 다만 그윽한 마음을 내도록 하라.

대비심이 없는 공부는 작은 공부이다. 자기만의 기쁨과 편안함을 넘어서서 모두가 함께 편안한 자원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러자면 수행자는 모를지기 풀 한 포기라도 버리지 않는 대비심이 있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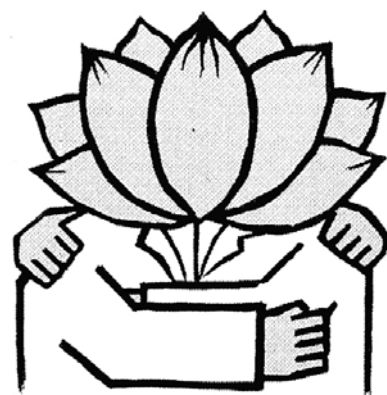
한다. 그리고 물러서지 않는 패기가 있어야 한다.

올바른 수행자라면 결코 어긋나지 않을 것이니 자연스럽게 대비심을 일으키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위대한 마음의 길, 마음법의 다음 차원을 터득하고 체험하여 다양한 방편을 얻게 되고 나. 너를 떠난 경지에서 크나큰 마음을 지니게 된다.

회로에락이 뒤엉킨 생활 속에서의 작은 불씨 하나, 작은 자비심 하나가 불법을 살린다. 눈다랗게 앉아 있는 부처님과, 위엄을 갖춘 큰스님에게서가 아니라 하찮고 비루한 속에서 실로 고상함이 나온다. 모든 생명이 그렇고 정법이 그러하다.

상대방에게 해를거나, 상대가 역정을 낼 기세가 보일 것 같으면 말로 하지 말고 주인공에 일임하여 안애다 놓으면 자식과 자식이 감응하듯 그쪽으로 열파가 통하게 된다. 이 우주간 법계는 허공에 거미줄을 쳐놓은 듯이 다 통하게 되어 있다.

부부지간에도 그렇고 부모 자식간도 그렇고 제 보기에 잘못하면 밉고 잘하면 이쁘다고 한다. 또 듣기 좋은 말 속삭여 주



면 풍다 하고 진실로써 잘못을 지적하면 듣기 싫다고 한다. 마음에 들면 이뻐하다 가도 마음에 안 들면 벌칙 화를 내기도 한다. 이런 일들은 자기를 깎아 먹는 것이니 모두들 주인공에 놓고 항상 좋은 말, 부드러운 일갈로 대하라. 그렇게 하면 참 나 자성불이 무진 통신으로 모두의 마음을 조절해서 화합하게 한다. 진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부처 속에서 중생이 나오고 중생 속에서 부처가 나왔으니 모두가 한 마음이다. 남을 원망치도 말고 남의 것을 탐하지도 말고 아첨을 버리고 항상 겸손하면서 뜻 보시고 법 보시, 부드러운 말 보시를 하라. 말로든, 마음으로든 항상 자비롭고 인의롭게 남을 대하라. 우리 모두는 언제나 상대성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니 회사로 치면 사장이 있어야 직원이 있고, 직원이 있어야 사장이 있다. 고로 서로가 서로를 아껴 폭 넓게 살아감으로써 자신도 아낄 수 있는 것이다.

자식이 물에 빠질 때 부모는 그냥 뛰어 들어서 건진다. 자기가 죽는지를 모른다. 거기 무슨 이유가 붙겠는가? 그와 같이 순간에 뛰어들어 건지는 마음, 그 마음이 부처님의 마음이고 자식을 생각하는 부모의 마음이다. 그래서 조상의 마음이 따

로 있고 부처님의 마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내 모든 것을 버려서라도 너를 살리겠다는 그 마음은 똑같다. 보답을 바라지 않는 부모의 참 사랑, 그것이 바로 자비이다.

정말로 사랑한다면 자비롭게 대하라. 그리고 놓아 주는 것이 사랑이다. 사람들은 온 조그마한 사랑을 가지고 죽네 사네 야 단둥이지만, 큰 사랑은 죽어도 사랑이요 살려도 사랑이다. 그것이 자비다. 죽이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사랑하기 이전에 내 아픔이요, 내 몸이요, 내 자리요, 바로 나이기 때문에 사랑한다 안 한다라는 언어가 붙을 수가 없다. 그대로 자비심이다.

자비란, 죄가 있든 없든, 거저는 부자들, 벌레이든 짐승이든 따지지 않고 내줄 수 있는 마음이다. 진실한 사랑은 그를 위해 내가 모든 것을 내줄 수 있는 사랑이다.

마음에서 스스로 우려나와서 마음을 같이 하고 오고 가는 사이 없이 에너지가 오고 갈 수 있는 두터운 한마음, 그것이 자비다.

협찬: 한 마음